'2006 건설의날' 금탑산업훈장수상

신훈 금호산업(주) 대표이사부회장

"IT 기술의 건설업 접목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건설업의 대표이사를 맡아오며 건설과 정보 통신을 접목시켜 건설업의 정보화, 첨단화를주도해왔다고자부합니다. 이번 수상은 건설업과 정보통신의 접목으로 건설업의 선진화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주시지않았나싶습니다. 더불어건설업을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선진 업종으로 승화시키려는 경영 철학이 인정받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금호산업 신훈 부회장이 지난 달 19일 열린 건설의 날 행사에서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정보통신 부문을 총괄하면서정보화를통한항공업계경영혁신을 주도한 정보산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하다.

흔히 신훈 부회장은 IT업계에서 정평이 나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하지만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1982년 삼환기업의 전산실장으로초창기건설업계의MIS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설업계와 밀접한 전력을 가지고있다.

그는 2002년 금호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침몰직전에있던 회사를과감한경영혁신을통해불과3년만에 경영정상화시켰다. 취임 당시 369%였던 부채 비율을 2004년에 150%대까지 낮추었고,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매출액 신기록을달성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성과를 이루었다. 그결과금호건설은2005년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전년보다 8계단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10대건설업체에재진입하는결과를 맞이하였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4개월 만에수주액1조원을돌파하는등회사가지니고있던각종기록을경신하고있다.

신훈 부회장은 금호건설에 취임하던 2002년을회상하면서"당시회사는인공호흡기를꽂은숨넘어가기직전의환자와같았다"라고말하였다. 이러한회사가한푼의 공적자금투여없이경영정상화를이루며 업계최고의기업으로거듭난데는바로신훈 부회장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것이주위의평가이다.

올해 신훈 부회장의 의지는 어느 해보다 남다르다. 지난2년동안 고속 성장을 이루며주목받은건설업체로성장한기틀에'안정'이라는 키워드를 심겠다는 것이다."우리회사에있어지금의경영정상화는 단기간 내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올해는 회사를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외 사업 재기와 굵직한 사업들이올해안에성사될전망이어서도 약의기회를놓칠수가없습니다."

신훈 부회장은 향후 공항 시설과 물류 시설, 그리고환경 사업 분야의 수처리 신기술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KIDEA 공법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분야는 수익성이 아주 뛰어난사업인 만큼 KIDEA 공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그는 금호건설이 꾸준히 실적을 거두고 있는민자제안사업분야에서도더욱더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대구 부산고속도로 등과 첫 BTL 사업인충주공군기지관사등풍부한 민자제안사업경험을회사의성장동력축의하나로삼겠다는것이다.

"앞으로기업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할것입니다. 또한, 턴키및대안입찰에적극참여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할것이며, VE 활동을통해기술력을 강화시켜경쟁력을 키워 나갈것입니다. 나아가베트남호치민시아시아나플라자착공을거점으로공항시설이나환경관련공사를통해동남아및중동시장에적극진출할 계획입니다. CJ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